



광산구 첨단2동, 폭염극복 생수나눔 캠페인

광주 광산구 첨단2동은 지난 7일 첨단 LC타워 인근과 월계초등학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에서 지역 주민 대상 폭염 극복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8일 광산구에 따르면 생수 나눔 캠페인은 폭염경보가 지속되면서 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첨단2동 통장단을 비롯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학생사랑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주민자치회 등 지역 사회단체들은 8월 한 달 동안 릴레이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어가며 주민에게 생수 4000개를 지원한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청년 1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폭염특보 발효 시 행동 요령도 함께 안내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김상철 기자**



광주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업무협약

(사)광주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센터)는 지난 7일 (사)한국도시재생학회·광주대학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단과 '북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센터는 각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시재생 분야의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로 협약했다. (사)한국도시재생학회와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보교환 교류·협력, 감정평가사 참여확대 교류·협력,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책 제안 및 계획 수립 교류·협력 등을 상호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대학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단과는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인적자원 교류, 교육, 워크숍, 포럼 등 합동 프로그램 기획 및 공동운영, 도시재생·정비사업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 등을 위해 업무협력을 약속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노인보호기관, 노인학대 근절 전시회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광주송정역 개찰구 앞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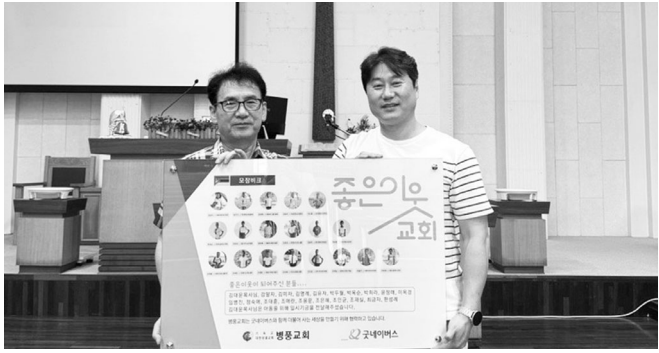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공모전 입상작들을 선보인다.

임지열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광주송정역을 이용하는 광주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인식 개선에 새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전시회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사진 전시회 설치를 원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062-655-4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굿네이버스-신안 병풍교회, 현판 전달식

굿네이버스 호남충청권역본부(본부장 정용진)는 신안군 병풍도에 위치한 병풍교회(목사 김대운)와 '좋은이웃교회'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

'좋은이웃교회'는 지구촌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기후원에 동참하는 굿네이버스 나눔 캠페인으로, 나눔에 참여하고 싶은 교회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병풍교회는 해외아동 1대1 결연을 통해 모잠비크 아동 19명의 꿈을 지원하고 있다. 김대운 병풍교회 목사는 “굿네이버스 호남충청권역본부와 병풍교회가 지속적으로 세상의 좋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교회가 앞장서서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정용진 굿네이버스 호남충청권역본부장은 “병풍교회와 함께 한 나눔을 통해 해외 아동들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광주도시공사, 폭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6일 지속되는 폭염을 맞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8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현장에서 전남개발공사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근로자와 관계자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식염포도당, 팔토시 등 물품 전달이 있었다.

또한, 양 기관은 현장내 현수막을 통해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인 '물·그늘·휴식' 메시지를 전파하고 온열질환 예방 스티커도 배부했다.

안전모에 부착하는 온열질환 예방 스티커는 안전모의 표면온도에 따라 3단계로 색이 변하며 근로자들이 외부 온도 변화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온열질환 위험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노병하 기자**



한국은행 지역본부, 교사 금융·경제 연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완근)는 8일 교사 금융·경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사진)

이번 연수는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과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교육청과 연계해 추진됐다.

이번 연수에는 80명 이상의 초·중·고 교사들이 참석해 한국은행과 화폐이야기, 경제·금융 상식,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예방법 등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참석자들은 “한국은행과 화폐의 변천사를 알게 돼 흥미로웠다”며 “앞으로 경제 뉴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스마트폰 수신 문자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유익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생 해외 기업 탐방 “활발”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이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 선진기업 탐방 연수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사진)

8일 지역혁신플랫폼 에너지신산업 육성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주지역혁신플랫폼 그린에너지·모빌리티사업단과 공동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대학교에서 에너지신산업 분야 교육연수와 기업체 탐방, 필드 트립 등 현지 대학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자체 선발 과정을 거친 전남대와 제주대를 비롯해 총 8개 대학 3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또 미래형운송기기육성사업단은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유럽 내 에너지 자립 마을에서 글로벌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독일 에너지 자립마을과 HOFOR(열병합발전소)를 견학하는 등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동신대학교 학생

10여명이 출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혁신본부 융합전공 가운데 첨단부품소재, 친환경 스마트 선박, 미래에너지-IP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총 46명은 각 과정별로 독일, 싱가포르, 네덜란드를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11일 출국하는 첨단부품재 융합전공 16명의 학생들은 전기차량 생산 중심지인 Mercedes AM센터, 세계적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KUKA 기업 등을 방문, 신기술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현장 실무자들에게 생생한 선진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전공분야의 지식을 쌓을 예정이다.

지역혁신플랫폼은 오는 10월에도 일본 오사카 제조공업 박람회인 'Manufacturing World 2024'에 참여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선진 기술을 접하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프로골퍼 김민규, 평등초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김민규선수와 학교관계자가

'김민규 프로 평등초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음주운전’ BTS 슈가 “킥보드 표현, 사안 축소 아니다”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사진)가 대체 복무 중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것과 관련해 사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 축소' 시비에 대해 해명했다.

8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원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



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슈가와 빅히트뮤직은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여기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탄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전동 스쿠터’라고 확인됐다.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고,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지만,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의 경우 범칙금과 벌도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지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곽지혜 기자